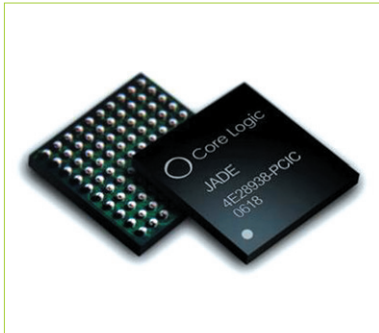


코아로직, 'MWC' 서 신기술 공개



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인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08'에서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셋 및 솔루션,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ISP3) 등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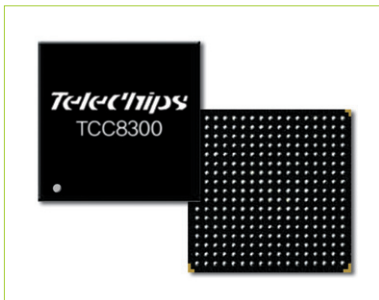
회사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처리 칩셋인 제이드(JADE)에 무선 이동식 저장장치인 UMS를 적용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컴퓨터로 무선 전송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등 모바일 하드웨어 칩셋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회사는 또 촬영시 손떨림 보정 기능과 얼굴인식 기능을 순수히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ISP3(Image Signal Processor3) 칩셋을 공개했다. ISP3는 JPEG 섬네일(Thumbnail) 기능을 제공해 JPEG 이미지의 액세스 속도를 높였고, 500만화소 이미지센서까지 지원하며, 렌즈 음영 보정기능 및 색상 오류 감쇄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코아로직 황기수 사장은 "코아로직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칩 설계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토탈 멀티미디어 플랫폼 솔루션 업체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칩스, 디지털 액자도 무선으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디지털액자에 전송해 볼 수 있게 된다. 또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



인터넷(AP)에 연결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라디오를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 텔레칩스(대표 서민호 www.telechips.com)는 자사의 와이파이 지원 디지털 액자 플랫폼과 CSR의 와이파이칩(UniFi칩) 기술이 결합해 이 같은 서비스를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액자 플랫폼 유니파이(UniFi) 칩셋과 텔레칩스의 TCC8300 미디어 프로세서를 기반

으로 한 것으로 멀티미디어 기기용 운영체제(OS)에서 구현돼 쉽게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다. 텔레칩스의 플랫폼은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하며 음악 서비스 가입을 통해 수천 곡에 달하는 음악을 라이브 또는 주문형으로 청취할 수 있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이미지를 표시하거나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사진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사진앨범을 감상할 수 있다.

서민호 사장은 "무선 연결 기능은 이제 필수"라며 "CSR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와이파이 연결을 제공하는 동급 최고 수준의 플랫폼을 개발해 고객사로 하여금 가장 이상적인 제품을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네트워크, DMB 모바일TV 칩 분야 세계 1위

피앤피네트워크(대표 김용훈 www.pnpnetwork.com)는 디지털방송 수신기(셋톱박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폰 등의 성능을 결정하는 수신 칩(Channel decoder)을 생산, 수출한다. 회사는 설립 6년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피앤피네트워크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유럽 이동방송 방식인 DVB-H와 DMB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모드 베이스밴드 모뎀 칩을 개발, 양산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수신 Link칩은 소니(일본), 필립스(네덜란드), TI(미국) 등 선진 외국 기업에서만 생산돼 오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피앤피네트워크가 처음 상용화한 것이다. 회사는 이 제품으로 DMB 모바일 TV 칩 분야 세계시장 12.6%를 차지, 세계 1위로 올라섰다. 국내시장은 34.3% 점유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획기적인 디지털 라디오 칩을 개발했다. PN302X로 불리는 이 칩에 전파를 수신하는 RF칩만 연결하면 디지털 라디오가 된다. 이 기술은 카오디오, 홈오디오, MP3 DAB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김용훈 피앤피네트워크 사장은 "DMB 휴대폰 내 채널 디코더 칩 분야에서 독자적 위상을 점했다"면서 "이제는 디지털 라디오 분야에서도 최고로 올라 서겠다"고 자신했다.

넥스트칩, IP카메라용 SoC 출시

멀티미디어 반도체 개발업체인 넥스트칩(대표 김경수 www.nextchip.com)이 H.264 기반 네트워크(IP) 카메라용 시스템온칩(SoC) 'NVS22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존 개별 존재하는 카메라용 이미지시그널프로세서(ISP), 비디오코덱, CPU, 네트워크 컨트롤러 등을 하나의 칩에 집적, 설계해 SoC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일본 소니만이 MPEG4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용 SoC를 개발했을 뿐, H.264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용 SoC를 출시하는 것은 세계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출시한 칩은 D1급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35만화소 고체촬상소자(CCD) 센서는 물론 130만화소급 CMOS 이미지센서와도 호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또 빛이 약한 상황에서 센서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디-노이즈 필터와 움직임이 있을 때만 영상보정 기능을 제공하는 디-인터레이서(De-interlacer)를 장착하고 있으며, 해킹에 따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밖에 H.264 압축방식은 물론 JPEG 압축방식의 영상신호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듀얼 스트림 기술을 채택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엠텍비전, 500만화소 카메라폰 반도체 출시

엠텍비전(대표 이성민 www.mtekvision.com)이 500만화소 카메라폰용 반도체를 출시, 고화소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엠텍비전은 500만화소 카메라폰에 최적화된 영상신호처리칩(CSP)인 'MV9333'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CSP는 휴대전화 카메라에 들어가 디지털 스틸카메라 수준 영상을 촬영 하도록 기능하는 반도체 부품으로, 그동안 CSP가 300만 및 500만 화소 등 다



양한 고화소 카메라폰에 적용된 데 반해 이번 제품은 500만화소에만 최적화됐다. 이 제품은 업계 최소 수준인 7×7mm 크기로 카메라폰을 슬림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영상압축엔진과 차세대 고속시리얼인터페이스를 내장해 대량의 영상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조도의 환경에서도 최적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AL'(Adaptive Luminance)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 엠텍비전 관계자는 "최첨단 0.13마이크로미터(μm, 100만분의 1m) 공정으로 생산될 이 제품은 올 하반기부터 월 200만개 이상 판매가 예상된다"며 "이번 제품으로 300만화소에 이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500만화소 이상 고화소폰 시장을 선점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이디칩스, 멀티미디어 SoC 개발

에이디칩스가 게임기, PMP 등 멀티미디어기기에 탑재되는 SoC(모델 이름)를 개발했다. 이 SoC는 정지영상 플레이 및 그래픽 처리에서 고화질·고음질의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처리해주는 프로세서다. 특히 이 제품은 32비트 EISC CPU를 기반으로 설계돼 H.264라고 불리는 차세대 영상 코덱과 2.5D 그래픽가속기, MJPEG, Sound Mixer를 지원한다. 에이디칩스가 선보인 이 제품은 게임기, DVD, 네비게이션, DMB단말기 등에 주로 장착된다. 에이디칩스는 이 제품을 중국 및 멀티미디어 기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 위즈넷, IPTV서 실시간 VOD 시청 칩 개발

IPTV를 통해 영화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네트워킹 성능을 높인 칩이 개발됐다. 위즈넷(대표 이윤봉 www.wiznet.co.kr)는 인터넷프로토콜인 TCP/IP를 하드웨어로 구현해 이더넷 맥(MAC)칩, 파이(PHY)칩 등 네트워킹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칩을 원칩화한 자사의 기존제품(W5100)보다 네트워킹 속도와 채널을 2배 이상 높인 'W5300'을 개발, 최근 시제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의 경우 IPTV를 통해 영화를 볼 때면 다운로드 속도가 낮아 영화의 일정 용량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했다. 이 제품은 50Mbps의 네트워킹 속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실시간에 가깝게 영화를 볼 수 있다. 50Mbps의 네트워킹 속도를 지원할 뿐 아니라 8개 채널을 지원한다. 이윤봉 사장은 "W5300은 기존 W5100의 코어는 그대로 쓰면서 자체 구동을 위한 메모리 용량을 늘려 네트워킹 속도를 기존 15Mbps에서 50Mbps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디지털방송 등 이른바 트리플 플레이서비스(TPS)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즈넷은 적용종인 0.18μ 공정을 앞으로는 0.13μ 공정으로 전환해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아이앤씨테크놀로지, 모바일TV용 칩 공급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디지털오디오방송(DAB)칩이 아이팟 주변기기에 채택됐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 www.inctech.co.kr)는 영국의 디지털 오디오방송(DAB) 수신기 업체인 인템포(INTEMPO)에 모바일TV용칩 'T3300'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인템포는 지난 성탄절에 영국에서 발표한 디지털오디오방송 수신기 iDAB에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모바일TV용칩 T3300을 채택했다. 인템포의 iDAB는 아이팟에서 DAB를 원활히 수신하게 하는 제품으로 향후 유럽 등지로 판매가 확대될 예정이다. T3300은 지난해 7월 출시됐으며 고주파(RF) 칩과 베이스밴드칩을 하나로 통합한 원칩이다. 동종 제품 중 크기가 5mm×5mm로 가장 작고 60mW 이하의

저전력을 구현한 것이 장점이다.

박창일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사장은 "T3300 외에도 다양한 모바일TV 칩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겠다"며 "향후 다양한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 모바일TV 칩 시장에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올해 선보인 RF칩의 성공을 발판으로 1분기에 전 세계의 다양한 모바일TV 표준을 아우르는 글로벌 RF칩을 출시할 계획이다.

○ 핸들러월드, 다각적영업 올매출 280억 목표

(주)핸들러월드(대표 이동안 www.thw.co.kr)는 2008년 매출 계획 및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2008년도에는 주력 상품인 비메모리용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로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도 진출해 매출처는 물론 상품 다각화를 실현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0.27초 인덱스타임의 핸들러(로직파워 플러스)를 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3년간 35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핸들러월드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비메모리칩 핸들러공급을 담당할 만큼 국내 비메모리 핸들러 장비시장의 빅플레이어이다.

로직파워 플러스로 시장에 이름을 알린 핸들러월드는 다국적 반도체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월드와이드용 장비인 어드밴스드 로직파워(Advanced Logic Power, ALP)를 개발, 1/4분기 내 이 제품으로 본격적 해외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핸들러월드는 2008년 총매출 280억 원, 영업이익 약 4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1월 한 달간 약 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핸들러월드 이동안 대표는 "이번 메모리 분야 장비개발은 핸들러월드의 수익기반을 안정화하고 종합반도체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켈트로닉스, 터치센서 및 반도체 분야 공략

켈트로닉스가 사업의 양날개인 전자·화학 사업의 동반 성장을 올해 노린다. 켈트로닉스(대표 이재능 www.chemtronics.co.kr)는 주력사업인 터치센서 시장과 반도체·LCD 소재 분야를 적극 공략하면서 올해 매출 목표로 1,600억원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자와 화학사업 부문에서 각각 900억원, 700억원씩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켈트로닉스 측은 "국내 전자업체들의 LCD TV·모니터 등에서 터치센서의 탑재가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터치 센서 생산량을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터치센서 IC 모듈과 칩을 각각 600만개, 300만개 양산했다. 삼성전자 보르도TV 시리즈 등 각종 전자제품용으로 공급했다.

켈트로닉스는 올해 시장이 열릴 터치스크린폰과 관련한 솔루션 개발도 패널업체와 협의중이다. 이재능 사장은 "외산업체들이 하던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국산화하면서 전자·화학 분야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올 한해를 획기적인 성장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료제공]

- [1] 전자신문 www.etnews.co.kr
- [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 [3]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